

# “저렴한 비용 좋았는데”...전기차 차주들 ‘한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 종료  
아이오닉 완충 기준 1,560원 ↑  
5년 요금 동결 공약 파기 비판  
친환경모빌리티 정책 차질 우려도  
“오른 만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제도가 종료되고 전기요금 인상됨에 따라 전기차 차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공약에서 할인 특례를 5년 연장한다고 공약했지만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감안해 더 이상 연장을

지 않기로 하자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지난 2017년 시행했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종료됐다.

이는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최초 50%에서 올해 일몰 전까지 순차적으로 할인율을 낮춰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2017년 1kW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부터 292.9원이었다가 지난 1월부터는 2016년도 수준인 1kWh당 313.1원으로 한 달 새 약 8.6%(20.2원) 올랐다.

1kWh 당 5.1km를 주행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준(배터리 77.4kWh)으로 1회 완충에 드는 비용은 지난달 2만2,670원에서 2만

4,230원으로 올라 1,560원가량 더 비싸졌고,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6,000km에 대입하면 연간 6만 3,3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기차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량 가격, 수리비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도 전비(킬로와트 당 주행 가능 거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기를 구매했지만 갈수록 메리트가 떨어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 요금을 향후 5년간 kWh당 300원대로 동결하는 등의 공약이 취임 두 달여 만에 파기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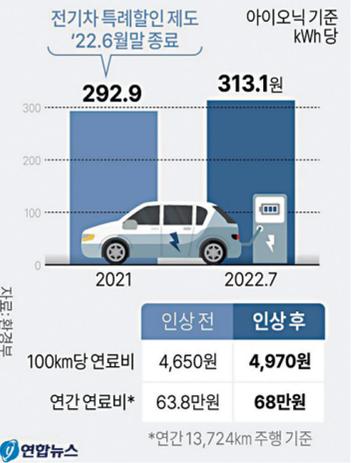
여기에 전기차 출고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충전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전기세 인상으로 전기차 구매 심리가 위축되며 친환경모빌리티 등 환경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차주 직장인 윤 모씨(50)는 “향후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공약에 전기를 서둘러 구매했지만 벌써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인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요금이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기차주 김 모씨(36)는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내연기관 차보다 연비는 훨씬 좋겠지만 전기차의 가격과 수리비용을 따져보면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린 만큼 전기차 편의를 위한 인프라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연합 김종필 생태도시국장은 “전기차 기술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등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물가와 원재료 가격에 따라 전기료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상된 만큼

## 전기차 충전요금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현 기자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 인력양성사업 담당자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상의 제공

## 광주인자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벤치마킹

### 인력양성사업 담당자 간담회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 인력양성사업 담당자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와 대구지역의 디지털 산업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광주지역 신기술 신산업의 새로운 훈련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디지털산업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시설 견학 및 운영방안 공유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디지털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디지털 산업의 훈련 과정을 확대할 것을 검토했다.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김은희 총괄팀장은 “광주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상호 공유해 양 지역의 인력양성사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 광주TP, 엑셀러레이터와 합동 투자설명회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엑셀러레이터(AC)인 ㈜페이스메이커스·㈜와이앤아처와 합동 투자유치설명회를 4-5일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이틀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굴·지원한 투자유망기업 18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VC(벤처캐피탈)들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국테크노파크중 최초로 한국거래소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투자펀드 운용사를 비롯 약 40개 투자사가 현장에 참가하며, 유튜브 생중계로 약 60여개사가 동참해 지역 최대 규모로 개최

된다. 발표 후에는 투자자와 기업 간 1대 1 투자 상담회와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그간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지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행사에 참가했던 광주 지역기업 22개사가 총 526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참가기업들의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또, 2020년 약정한 총 1,098억원의 인공지능 1차 투자펀드를 광주테크노파크가 주도해 결성하고,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45개사에 766억원이 투자됐다. /홍승현 기자

## 전남TP, 에너지 융복합단지 수혜기업 모집

전남테크노파크는 전국 최초로 ‘전남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기업지원사업’ 수혜 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전남TP는 에너지 특화기업과 에너지신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 및 목포·나주·함평·장성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 장관기업 및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TP는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개사 내외의 수혜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원프로그램은 ▲에너지 전·후방 기업의 R&D실증지원 ▲기술지원 ▲ESG지원 ▲인증지원 ▲산학협력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전과의 협력으로 에너지밸리기업의 ESG 경영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광주·전남 16개 대학과 에너지밸리 116개 기업을 연결한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모집 공고는 전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홍승현 기자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주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으로

평소 살던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